[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] ② "부부 아니고 50년 수행도반으로 걷습니다"

박봉영 기자 | 이경민 기자 | 승인 2021.10.12 13:48 | 호수 3687 | 댓글 0

천리순례에서 만난 사람들 - 윤재웅 이세옥 부부

윤재웅 이세옥 부부.

"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남편하고 어디 안 가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. 지난해 자비순례 참가했던 남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꼭 한 번 같이 가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거죠."

남편 윤재웅 동국대 교수를 바라보는 이세옥 씨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. 고단한 순례 일정에도 짜증 한 번 안내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7살 소꿉질 시절부터 만난 50년 부부 사이다. 지난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완보한 윤 교수의 권유에 평소 걷기를 좋아하던 이 씨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면서 50년차 부부가 이제 수행 도반으로 순례길에 올랐다.

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, 쌀쌀해지는 날씨에 차가운 길 바닥에서 자고 하루 장거리를 걸어야 하는 고된 순례 생활. 주변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쉬운데 이 부부는 서로 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다. 부인 이세옥 씨는 "힘들고 불편한 건 있지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며 오래도록 남편하고 함께 걷는 이 길이 좋다"며 "특별히 무언가를 얻으리란 생각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조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해야겠다는 생각 뿐"이라고 말했다.

남편 윤재웅 교수도 "부부라기 보다는 50년 수행 도반으로 왔다"고 했다. 윤 교수는 "평소에도 아침 산책을 하며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한다"며 "천리순례는 묵언 행선하며 보다 긴 시간 동안 걷기를 하는 만큼 복잡한 생각을 가급적 버리고 그 빈 공간을 보다 풍요로운 생각들로 채워가려고 한다"고 했다.

불교신문TV 더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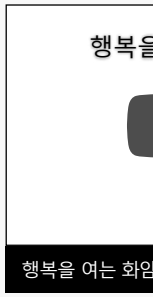
포토뉴스

섹션별 최신기사

종단 "막말 정청래 사퇴하라"...1인 차량...
전국 심곡암,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 ...
사회&국제 세상을향기롭게, 굿월드자...
인물 [동정] 정도스님, 가사불사 회향 점...
대중공사 [여시아문] 아이들에게 배운다

"SNS에서 뉴스를

불교신문TV



많이 본 기사

1 [원과스님의 해
2 前 경주 기림사
3 불조 혜명 계승
4 대종사·명사 스
5 총무원장 원행스
6 "아들 출가시킨
7 423km 대장정 호
8 [불교신문이 만
9 "수륙재로 모든
10 BBS불교방송 신

최신뉴스

"막말 정청래 사퇴하
[동정] 정도스님, 가사
심곡암, 코로나19로
강릉사회복지관 소외
영등포장애인복지관
청주불교방송 11월6
[25교구 뉴스] 봉선사
역사적 상처 치유...1
정해림 승무 '2021 정
일진베어링, 경주장애

창녕=박봉영 기자 bypark@ibulgyo.com
이경민 기자 kylee@ibulgyo.com

저작권자 ©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박봉영 기자 | 이경민 기자
다른기사 보기

관련기사
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] ① 누적 295k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] ② "딸과 평생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] ① 비바람 불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] 245km 걸어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] 가야산에 이르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] ② 순례단 찾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] ① 견디고 참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] 조금만 더 가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] ② 자승스님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] ① 청매선사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] 힘들어도 자비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] 지리산 가거든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] 안개 자욱한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] ② 사찰 참배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] ① 함께 걷는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] ② 삼보의 의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] ① 한국불교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] 발톱이 들리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] 사명감 하나로 밤낮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] ② '적극적 포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] 긴장 속 호국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] 길 위 수장의 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] ② "우리 모두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] ① 마지막 고...
- [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] 대장정 회향...
- 423km 대장정 회향...순례길 여는 출발점 ...

댓글 0

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.

✓ **최신순** 추천순

수행&신행 '맘마미아' 뮤지컬 가수 등...
문화 정해림 승무 '2021 정해림 찰나의 ...
기획&연재 [주제가 있는 사찰 기행] 화...
출판&문학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시 읽...
학술&문화재 동국대 동서사상硏 제16...
복지&상담 강릉사회복지관 소외계층 ...

첫 종단본 《불교성전》
– 중정 법어, 총무원장 ...

법공양 (기획PR)

우)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(견지동),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| 편집국 : 02-733-1604 | 구독문의 : 02-730-4488 | 광고문의 : 02-730-4490
사업자등록번호 : 102-82-02197 | 정기간행물·등록번호 : 서울특별시 다06446 | 창간일 : 1960-01-01 | 등록일 : 1980-12-11
제호 : 불교신문 | 발행인 : 원행스님 | 편집인 : 현법스님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여태동
Copyright © by 불교신문.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・복사・배포를 금합니다.